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분류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Home Management Behavior
and It's Related Variables of Urban Housewives—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李貞珩

강사 朴美錦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rof: Jung Woo Lee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r: Mi Kum Park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및 논의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home management behaviors of urban housewives and to find out variables which influence them.

Following are the results.

1. The home management behavior of urban housewives are classified into six types. Those expense and convenience oriented type, using the information and family centered type, tradition and steady oriented type, improving life type, conservative and thrifty type and the self-faithfulness and change adaption type.

2. Follows are the variables which have influenced on home management behaviors of urban housewives.

① The level of education of housewives, perceived level of economical resources, income and evaluation level of life have influenced on expense and convenience oriented type.

② The duration of marriage, the level of education of husband, the satisfaction of housework and communication interaction have influenced on using the information

and family centered type.

③ The satisfaction of housework, the perceived level of economical resources, the level of education of husband and the age of housewives have influenced on the tradition and steady oriented type.

④ The perceived level of family resources and the communication interaction have influenced on the improving life type.

⑤ The communication interaction and the income have influenced on conservative and thrifty type.

⑥ The perceived level of economical resources, the satisfaction of housework, the communication interaction, the level of education of housewives, the age of housewives and the number of children have influenced on the self-faithfulness and change-adaption type.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로서, 주변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변화에 적응하면서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또한 인간의 행동이란 기본적으로 목표지향적인 것(Hersey와 Blanchard; 김남현 역, 1982: 31)이며 관리란 일반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자가 행하는 일련의 작업을 포함하는 하나의 과정(Schlater, 1967: 94)이라고 할 때 가정에서 행해지는 가정관리행동은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즉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조직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가정관리행동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에는 제한된 자원으로 다양해진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가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 및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많은 가정의 기능이 사회로 이전되고 있는 반면 가족원의 결속 및 정서적 유대는 여전히 중요한 기능으로 남게되어 더욱더 가정의 안정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정의 내·외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며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절한 방법으로

가정관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가정의 목표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 중에서 가정관리자에게 초점을 둔 가정관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정관리자인 주부가 얼마나 합리적·효율적으로 가정관리를 행하고 있는지를 규명한 연구로 관리과정 및 관리대상에 따른 가정관리자의 능력에 관한 연구(이정우, 1981a; 이정우, 1982b; 한상순, 1978; 최윤희, 1982; 이정숙, 1983; 이명숙, 1987), 가정관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장명옥, 1976; 김윤희, 1977; 지금수, 1982) 등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한편,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수행을 통한 관리과정을 중심으로 관리자 유형을 도출하거나(채옥희, 1987),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해 가치를 기초로 한 관리자의 의사결정양식을 분류하거나(임정빈, 1987), 가정관리자가 가정관리를 수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유형을 분류하고 여기에 대한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조영희, 1985; 김혜연, 1986; 이정우·오경희, 1988a; 이정우·오경희, 1988b).

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유형화하고 가정환경적 변인 및 주부자신의 심리적 변인들이 주부의 유형별 가정관리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제한점

- 1) 조사대상자를 서울시 거주 주부로 한정하여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 2)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가 표준화된 질문지가 아니어서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 3) 유형화된 가정관리행동을 명명하는 데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명칭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4. 용어의 정의

- 1) 가정관리행동유형: 주부가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정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가정생활의 제 영역에서 특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자원지각도: 주부가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자원의 적당한 정도로서 자원의 범위는 주부자신의 건강·체력·시간(개인적), 가족간의 상호작용(가족적), 재정(경제적) 자원으로 한정한다.
- 3) 의사소통 만족도: 의사소통이란 언어를 포함한 상상을 매개로 하여 타인과 가지는 상호교섭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관리를 위한 가족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 4) 가사노동 만족도: 가사노동수행을 통한 목표달성이나 욕구충족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를 말한다.
- 5) 생활수준 평가도: 가정의 생활수준에 대하여 주부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정도를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정관리개념

Anderson 등은 인간행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체계적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사회체계접근법을 제시하고 이것은 상호작용하고 서로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나 사람의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는 가족, 조직, 지역사회, 문화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Anderson과 Cater: 장인협외 공역, 1986: 24). 체계라는 것은 범위를 가지고 기능적인 단위로서 작용하는 상호관련적인 요소를 조직적으로 모으는 것인데, 가정관리라고 하는 체계 중에는 가치나 욕구 등이 자원이용에 의하여 실현되고 충족되어진다(장명옥, 1987: 48). 가정은 사회체계의 하위체계로서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Schlater 등(1962: 782)은 관리란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인간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이고 계속적인 과정으로 목표지향적인 기본은 불확실하고 제한된 자원활용을 위해 상호관련있는 결정을 짓고 수행케하는 체계적인 일련의 활동이라고 하였으며, Gross 등(1980: 6)은 가정관리란 가족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사용 및 창출과 관련된 합목적적인 행동이며, 이러한 자원으로는 가족구성원 전체의 자원을 말하며, 시간·에너지·금전·물자뿐만아니라 가족원의 지식·흥미·능력·기술·태도·행동 및 지역사회시설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Riebel(1960: 16)은 가정관리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관리란 가정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고 기본이 되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치·목표를 명확히 하고, 자원평가·장애요소자각·정보수집·가능한 해결책의 결정·해결책의 손익계산·의사결정·활동으로 계획수행·만족도와 목표달성면에서의 결과평가 등의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족집단은 여러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여 그 결과 개인과 가족의 목표규정, 집단 의사결정·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도움, 바람직한 목표성취를 위한 자원사용의 표준설정 등이 따르며(Swanson, 1981: 14), 가정생활의 목적은 주어진 관리적 능력을 사용하여 상황적 긴장내에서 유용한 자원에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Balakrishnan 외, 1986: 185).

요약을 해보면 가정관리란 변화에 대한 가정의 내·외적 환경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동시에 가족 개개인의 성장·발달유지를 도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

하여 사용가능한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생활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게 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정관리행동과 그 유형 및 관련연구

가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리자가 수행하는 가정관리행동은 체계의 구성원인 인간의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인 성품에 환경의 영향을 덧붙여서 인간의 행동을 규명하게 되었다(박병석, 1985; 21). 한편 박운성(1988; 59)은 사람은 지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듣고 보는 등 감각하는 바를 조직하며, 인간이 물적·인적 환경요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지각의 문제이므로 이같은 지각과정은 인간행동유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 즉 환경을 지각하는데 따라 각기 다른 행동을 하게 되므로 사회체계와 가정체계의 관계에서 볼 때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체계 내의 가족구성원과의 상호관계와 동시에 환경과의 상호작용관계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환경은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고 행동을 유발시키는 강력한 요소 중의 하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이정우, 1982a; 168).

사회적 환경이 점점 더 복잡해지면 가정관리행동도 점점 더 복잡해지며 또한 사회적 환경에 대한 개인이나 가족의 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은 복잡하게 된다(장명옥, 1987; 37). 즉 가정은 사회에서 고립된 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대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내에서는 더 많은 사회관계를 맺게되며 더 조직적인 관리행동이 필요하게 된다(문숙재, 1988; 67).

한편 Williams(1974; 30)는 성공적인 관리자는 사용가능한 자원에서 최상의 가치를 얻는 조직자라고 하여 가정관리자의 개인적인 능력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사회체계의 하위체계로서 가정이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근거로 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정, 구성원으로서 주부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다양한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주부가 행하는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분류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명옥(1987; 64-65)은 가정관리자가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조직하고 계획을 실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목표를 인간중심적인 것에 두어 개인의 성장·발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또는 일중심으로 능력이나 기술을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관리유형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문숙재(1981; 70)는 가정관리행동의 목적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생존의 궁핍의 관점에서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가정관리행동의 방향을 수단적인 것과 표현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수단적인 가정관리행동은 목적지향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도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며 완전한 물질의 공급을 위한 성향인 반면, 표현적인 관리행동은 가치의 세계를 추구하고 보호의 기능에 전념하여 사랑의 현실을 기본으로 하는 성향이라고 하였다. Buckley는 시스템이론에 입각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개방적인가 즉 변화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가에 따라 사회체계를 안정지향형(Morphostatic Pattern)과 변화지향형(Morphogenic Pattern)으로 분류하고 있다.(Beard와 Firebaugh, 1978; 192에서 재인용). Deacon등(1981; 20~21)은 변화지향형 체계는 변화에 대하여 적응과 성장을 지지하고, 발전적인 형태를 의미하며, 안정지향형 체계는 고정되고 안정된 형태이며 변화에 적응이 어렵거나 저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 두가지가 일반적인 유형내에서 어느정도 필요하게 된다고 하였다.

조영희(1985)는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나누고 관리 대상 및 자아실현도간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김혜연(1986)은 가정관리행동을 시장의존형과 용역형으로 나누어 생활양식유형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임정빈(1987)은 가정관리의 투입-수행 결과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수행과정요소로서 관리자의 의사결정양식을 인간중심적·과업중심적 의사결정양식으로 구분하고 세가지 가정관리요소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채옥희(1987)도 가사노동 조직화 및 가사노동 관리자 유형에 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해 가사노동 관리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가사노동 관리자 유형을 구

성하는 요인을 인간중심지향과 과업중심지향으로 구분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유형별로 관리자를 구분하였다. 이정우·오경희(1988a)는 가정관리행동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의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의 관계를 규명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1988 b)에서도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나누고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족환경변인·심리적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이안나 등(1991)은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고 주부의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조미환(1990)도 안정지향·변화지향형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으며, 최동숙(1991)도 가정자원관리행동유형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여 가정관리체계요소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을 시도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는 체계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사회체계속에서 가정관리체계가 어떻게 역동적으로 반응하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즉 변화나 성장에 대한 수용 여부 혹은 그와 반대인 안정과 지속의 수용 여부, 가정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표현인 가사노동의 측면에서 산업화 및 대량생산에 따른 가사노동의 사회화 정도를 나타내는 시장의존성 여부에 관한 연구, 가사노동 수행과정에서의 관리자 유형 혹은 가정관리 수행과정의 의사결정양식에서 결과와 과정 중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그러나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을 안정지향형과 변화지향형으로 구분하여 관련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다.

3.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1) 가정환경적 변인

가. 연령

연령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조영희(1985; 41~47)의 연구에서는 시간관리 및 자원관리 영역에서 연령이 영향변인으로, 특히 40대 주부가 30대 주부보다 더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나타내고 있었다. 임정빈

(1987; 43)의 연구에서는 30~40대 주부가 인간중심적인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이정우·오경희(1988b; 146)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안정지향적인 가정관리를, 김혜연(1986; 45)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적을수록 시장의존형의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면 주부의 연령은 가정관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학력(주부 및 남편)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학력은 주부의 가정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즉 대체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효율적인 가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장명옥, 1976; 66~79; 이정우, 1982b; 180~189; 지금수, 1982; 209),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으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조영희(1985; 47)의 연구에서는 대졸집단이 중·고졸집단보다 더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나타내어 학력이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인 관리행동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이정우·오경희(1988a; 45)의 연구에서는 애정에 대한 가정관리는 학력이 높을수록 변화지향적인 반면, 시간에 대한 가정관리는 학력이 낮을수록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으로 나타났다. 이안나 등(1991; 148)의 연구에서는 대졸이상인 주부가 고졸이하인 주부보다 변화지향적인 금전관리행동유형을 나타내었다. 김혜연(1986; 45)의 연구에서는 부부 모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의존형의 가정관리행동을 나타내었으며 채옥희(1987; 56)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관리자 유형에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서 고졸학력의 주부들은 통합형(가사노동을 이상적으로 운영하는 유형으로 규정)이 가장 많았으며, 중졸이하로 교육수준이 낮거나 전문대이상 졸업의 주부들은 관련형(인간중심적 관리자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자녀수 및 가족수

자녀수 및 가족수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에 대한 연구결과는 일치하지 않아서 이정우(1982b; 193)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관리능력이 낮아지는 부적 상관관이 있었으나 몇몇 연구(이정숙, 1983; 59; 지금수, 1982; 211)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녀수 및 가족수는 가

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연구결과가 일치하지는 않았다. 즉 이정우·오경희(1988a; 45)의 연구결과 자녀수가 3명이하인 주부가 4명이상인 주부보다 애정에 대하여 더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유형을 보였으나 다른 연구(1988b; 140)에서는 자녀가 없는 가정의 주부가 자녀를 1명이상 둔 주부보다 더 안정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조미환(1990; 39)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보였다. 김혜연(1986; 46)의 연구결과 동거자녀수가 적고 가족수가 적을수록 시장의존형의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정빈(1987; 41~44)의 연구에서는 가족수가 1~2명인 경우에는 과업중심적이고, 3명이상으로 증가할수록 인간중심적 의사결정양식을 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결혼지속년수

조영희(1985; 41)의 연구에서는 결혼지속년수가 16~20년인 주부가 11~15년인 주부보다 더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보였으며, 임정빈(1987; 41~44)의 연구에서는 결혼중반기에는 인간중심적 의사결정양식을 택하나 결혼초기와 후반기에는 과업중심적 의사결정을 하여 가정생활주기와 결혼지속년수 등의 생활주기단계가 영향변인임을 밝히고 있다. 이정우·오경희(1988a; 42)의 연구결과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유형은 결혼지속년수가 25년 이하의 주부가 애정관리에서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다.

마. 소득 및 사회경제적 지위

조영희(1985; 40)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시간과 금전관리행동이 변화지향적이었으며, 이정우·오경희(1988a; 45)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질수록 시간관리행동이 변화지향적으로 나타났으며, 체력과 애정에 대한 관리행동은 대체로 안정지향적이며 특히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더욱 안정지향적인 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심리적 변인

가. 자원의각도

개인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잠재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원이 소

비되었을 때 만족을 제공해주는 자산이다(Nickell 외, 1976; 111~113). 자원은 개 개인의 능력·지식·시간 및 에너지와 같은 개인차원에서의 자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환경과 같은 환경차원에서의 자원도 중요하다(이기영, 1984; 36). Rowland 등(1985; 219)은 인간·환경의 개념들 속에서 자원을 건강·신체에너지자원, 시간자원, 지식·기술자원 등의 3가지 인적자원과 재정자원, 그리고 3가지 환경자원 즉 물리적 환경, 대인적 환경, 지역사회자원 등 7가지로 자원영역을 구분하였다.

최동숙(1984; 281)의 연구결과 가족자원관리에 대한 의식이 높아질수록 가족자원관리를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1991; 63~64)에서는 자원인지수준이 높을수록 변화지향적 관리유형을 나타내었다. 이명숙(1987; 55)의 연구에서는 자원적정도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았으며, 그 중 개인적 자원인 지식·기술자원 인지도와 대인적 자원인지도가 가정관리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또한 김경아(1990; 58)에 의하면 자원인지도가 높은 주부가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실지 자원의 소유정도보다 사용가능한 자원을 어떻게 지각하느냐가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의사소통 만족도

가정관리의 효과를 보다 더 크게하는 과정으로서의 의사소통은 의사결정과정에 포함되거나 또는 그 자체가 독립된 연구대상으로서 최근에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장명옥; 1987; 91). 또한 Gross 등(1980; 6)에 의하면 가정관리가 단순한 일의 수행이 아니라 의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지시되는 행동이나 수행으로 보고, 단순한 가사능력 수행이 아닌 정신적 과정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가정관리자인 주부가 중심이 되는 가정관리라고 해도 가족간의 의사소통을 거친 의사결정에 의하여 보다 더 가정의 목표성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가정관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정우·오경희(1988b; 145)의 연구에 의하면 의사소통정도는 가정관리행동유형에 하면 의사소통정도는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변인

으로서 의사소통정도가 높을수록 안정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보였으며, 김경아(1990:56)의 연구결과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집단일수록 주부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인적 자원관리 측면에서 가족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부의 가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가사노동 만족도

관리적 체계에 있어서 자원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가사노동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사노동이란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행되는 모든 관리적인 활동이며, 오늘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육체적인 노동의 측면보다 정신적인 노동 즉, 가정의 관리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을 가정관리행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행동이라고 전제할 때 가사노동은 가족의 목표나 표준에 근거해서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조함으로써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표지향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채옥희, 1987:21). 서창원(1983:69)에 의하면 주부역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주부가 가사노동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숙(1987:47)의 연구에서도 가사노동의 평가도가 높은 주부들이 가정관리능력이 더 우수한 경향을 보인 것을 볼 때 가사노동에 대한 만족도는 주부 자신은 물론 가정의 복지측면에서도 가정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생활수준 평가도

가정관리행동을 가정생활의 질을 결정하고 목표 및 가치에 입각한 결정(장명옥, 1987:48)으로서 양적인 생활수준을 바탕으로 하여 질적인 생활표준을 향해 이루어지는 가정내의 행동(정은숙, 1985:2)이다. 이기영(1984:120~121)의 연구에서 가치형태·기대성취도·열망도성취도·상대적 박탈감등 주관적 지표인 사회심리적 변수가 생활의 질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은숙(1985:57)의 연구에서도 만족도·중요도·열망도 등의 주관적 지표가 객관적 지표보다 더 생활의 질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가정관리행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생활의 질향상이라고 할 때 가정생활 전반에서 느끼는 주관적 평가는 주부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반영하

면서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최동숙(1984:276~279)의 연구에서 주관적인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자원관리의식이 높았으며 관리행동의 점수도 높았다. 이명숙(1987:46)의 연구에서는 가정생활을 평가하는 심리적 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점수가 높았으며 이정우·오경희(1991c:13~14)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 인지도는 가정관리능력에 대하여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2) 도시주부의 유형별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적 변인(연령, 학력, 남편의 학력,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월평균 가계소득)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도시주부의 유형별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자원지각도:개인적·가족적·경제적 자원, 의사소통 만족도, 가사노동 만족도, 생활수준 평가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측정도구

1) 가정관리행동 척도

1) 본 연구에서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이정우, 1981a; 조영희, 1985; 김혜연, 1986; 임정빈, 1987; 채옥희, 1987; 임정빈·임혜경, 1988)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가정관리행동유형화를 위하여 사용된 총64개 문항은 예비조사를 거쳐서 수정·보완하여 총54개 문항으로 구성하여 본조사에 사용하였다. 문항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서 “거의 그렇게 한다”의 5점부터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의 1점으로 되어 있다.

2) 심리적 변인 척도

자원지각도에 대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이명숙, 1987; 김경아, 1990)를 근거로 본 연구목적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정·수정하여 재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쳐서 총12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하위 영역별로는 개인적 자원, 가족적 자원, 경제적 자원으로 나누어지며, 각 영역마다 4문항씩으로 구성되었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들의 자원의 적당함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의사소통 만족도에 관한 척도는 선행연구(김경아, 1990)를 기초로 구성하였으며, 총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 가사노동 만족도 척도는 선행연구(박인경, 1986; 김연화, 1986)를 기초로 하여 예비조사를 거쳐서 수정·재구성하였으며 총8개 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사노동에 대하여 더 만족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생활수준 평가도는 주부자신이 가정생활수준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인 판단이며, 단일문항으로 상·중상·중·중하·하의 다섯단계로 상의 5점에서 하의 1점까지로 나누었다.

심리적 배경변인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검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1과 같다.

3. 연구 대상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로서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강동구)와 강북지역(도봉구,

구로구, 용산구)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1개교씩 임의표집하여 선정된 학급의 학생을 통해서 어머니가 직접기입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4. 자료수집 및 처리

1991년 5월 15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6월 1일부터 6월 15일에 걸쳐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40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 343부를 분석자료로 하였다. 빈도분표, 백분률, 요인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은 표-2와 같다.

2. 연구결과 및 분석

1) 가정관리행동유형 분류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추출하기 위하여 전체 54개 문항을 주성분 분석방법 (Principal-Component Analysis)으로 적용한 결과 아이겐 값(eigen value) 1.0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18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분산의 63.8%를 설명하였다. 이 중에서 요인적재치가 0.3 이하인 14개의 문항을 제외한 40개의 문항을 Varimax 방법으로 회전을 시켜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각

〈표 1〉 심리적 변인 척도의 신뢰도

변 인		문항수	Cronbach's α
자 원 지각도	개인적 자원	4	.66
	가족적 자원	4	.70
	경제적 자원	4	.67
의사소통 만족도		8	.81
가사노동 만족도		8	.67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정환경적 변인

배경변인	집단		배경변인	집단		
	구분	빈도(%)		구분	빈도(%)	
연령	29세 이하	23(6.7)	학력	중졸 이하	58(16.6)	
	30-39세	127(37.0)		부인	고졸	154(44.9)
	40-49세	164(47.8)		대졸 이상	131(38.2)	
	50세 이상	29(8.5)		계	342(99.7)	
	계	343(100)		남편	중졸 이하	57(16.6)
월평균 소득	90만원 이하	17(27.0)	고졸		94(27.4)	
	91-130만원	97(28.3)	대졸 이상		222(64.7)	
	111-170만원	74(26.1)	계		341(99.4)	
	171만원이상	101(29.4)	결혼지속년수		5년 이하	23(6.7)
	계	343(100)		6-10년	32(9.3)	
자녀수	0-1명	48(14.1)		11-15년	88(25.7)	
	2명	159(46.4)		16-20년	133(38.8)	
	3명	94(27.4)		21-25년	41(11.9)	
	4명 이상	42(12.1)		25년 이상	24(7.0)	
	계	343(100)		계	341(99.4)	

* 빈도의 합계 수치가 다른 것은 Missing Data 때문임.

요인 중에서 동질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6개 문항을 제외한 34개 문항을 다시 회전시킨 결과 6개요인이 전체분산의 45%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요인의 신뢰도는 내적 일치도에 의거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표-3)

각 요인에 대한 명명을 표-4와 같이 하였으며, 각각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비·편의주의형

이 유형은 가정을 경영하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지

출을 많이하는 소비위주형이다. 즉 운택한 생활을 위해서 낭비도 하고 생일, 입학 등의 가정행사나 휴가 등의 가족공동생활을 위하여 가정 내에서보다는 가정 밖에서의 생활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의 사회화측면에서 시장의존적인 가정(문숙재, 1981:80)의 관리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구매장소로서 백화점을 더 선호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구매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필요치 않은 물건도 돈의 여유가 있으면 사거나, 예산범위내에서만 지출하는 것과 반대 경향인 것을 볼 때 충동 구

(표 3) 각 요인별 신뢰도

요 인	해 당 문 항	Cronbach's α
I	38, 25, 51, 52, 54, 39, 21	0.719
II	6, 7, 22, 33, 4, 20, 53	0.707
III	5, 26, 46, 3, 50, 44	0.637
IV	49, 12, 34, 37, 48	0.611
V	31, 47, 16, 10, 18	0.591
VI	19, 23, 9, 36	0.446

매를 하거나 또는 비합리적인 경제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은 가정관리행동을 소비·편의주의형으로 명명하였다.

나.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

이 유형의 주부들이 신문이나 T.V등에서 접하는 새로운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활용하는 것은 개방적인 가정체계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매일의 식단을 짜는 등의 계획성있는 가정관리를 하면서도 시간계획시에는 예상밖의 일을 고려하여 융통성있는 생활시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는 가정관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용돈관리를 확인하고 자녀양육에서 아들과 딸에 대한 품성지도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한 음식을 만드는 등 가족 개개인을 위한 가족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와같은 가정관리행동을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으로 명명하였다.

다.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

제사를 계승하고 격식에 따라 진설하거나 명절에는 고유한 음식을 만드는 등 전통적인 생활관습으로 가정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즉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은 보수적이며 전통지향적인 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매달 일정액의 저축을 하거나, 저축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고정적인 가정경제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가정관리행동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대처를 하는 유연성이 미흡할 가능성도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을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라. 생활개선형

부엌을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선하거나 편리한 기구·부엌용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가사노동의 능률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가정관리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가구의 위치를 바꾸어서 집안의 분위기를 고려하는 것은 가능한 방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추구하는 가정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절에 따른 의복관리나 가족들의 가정밖의 생활을 파악하는 등의 철저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즉 환경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면서도 일정한 범의 내에서 규칙적인 일면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같은 가정관리행동을 '생활개선형'으로 명명하였다.

마. 보수·절약형

이 유형의 주부들은 전통·보수적인 가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옷이나 간단한 수예품을 만들고 콩나물이나 파 등을 집에서 길러먹는 등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덜 이행된 전통적인 가사노동을 선호하고 있으며, 격식을 차려야 할 경우에 한복을 입는 등 보수적인 가정경영을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유행이 지난 옷을 고쳐입거나 취미생활을 위한 기구에 관심을 갖는 등 이런 유형의 가정관리를 소비성향이 강하고 시장의존적인 소비·편의주의형의 가정관리행동과 비교해 보면 절약을 강조하면서도 안정된 생활을 추구하는 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보수·절약형'이라고 명명하였다.

바.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

이 유형의 특징은 가정관리자로서 주부 스스로나 가정을 경영하는데 상황에 따라 융통성있게 변화를 추구하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의 목표나 계획했던 행사를 상황에 따라서 미루거나 또는 가족원의 입장에서 변경하는 것 등은 환경의 변화를 수용하는 가정관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을 경영하기 위해 자유롭게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은 가정관리의 책임자로서 주부자신에 대한 충실한 면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가정관리행동을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과 비교하여 볼 때 지나치게 변화를 추구한다면 지속적인 가정목표달성 측면에서 안정성을 상실할 우려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

연구문제 (2)와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주부의 각각의 가정관리행동을 유형화 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유형화된 가정관리행동에 가정환경적 변인 및 심리적 제 변인을 투입하여 다단계투입방식(Stepwise)으로 검증하였다. 각각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표-5).

가. 유형 1: 소비·편의주의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정환경적 변인으로 주부의 학력과 소득, 심리적

(표 4) 가정관리행동유형 요인분석

분항 번호	변 인	요인 I 소비·편의 주의형	요인 II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	요인 III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	요인 IV 생활개선형	요인 V 보수·절약형	요인 VI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	Cummunality
38	윤택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낭비도 하는 편이다.	0.72	-0.01	0.04	-0.07	0.20	0.09	0.57
25	가족원들이나 나의 여가 생활을 위하여 돈을 지출한다.	0.64	0.17	0.11	0.10	-0.21	0.07	0.50
51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라도 마음에 들거나 돈의 여유가 있다면 사는 편이다.	0.59	-0.12	0.06	0.08	0.07	0.13	0.40
52	주말이나 휴가 때에는 가족들과 외식, 쇼핑 혹은 여행 등을 한다.	0.58	0.31	-0.06	0.19	-0.17	-0.07	0.51
54	가족들의 옷이나 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백화점보다는 제라식 시장을 이용한다.	-0.58	-0.14	0.08	0.12	0.08	0.003	0.41
39	가족의 생일, 입학 등 가정행사 때에는 외식을 하는 편이다.	0.56	0.06	0.02	0.32	-0.14	-0.003	0.44
21	생활비는 예산을 채우고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출을 한다.	0.45	0.39	0.21	0.13	0.14	-0.10	0.44
6	잡지나 T.V에서 새로운 음식이나 요리방법을 접하면 한번 해 본다.	0.19	0.69	0.06	0.05	0.03	-0.02	0.52
7	자녀교육에 관하여 T.V교육프로그램이나 신문기사를 참고한다.	0.19	0.66	0.09	-0.01	0.06	-0.01	0.48
22	자녀들이 용돈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한다.	-0.09	0.54	0.23	0.14	0.03	-0.02	0.32
33	매일의 식사를 위해 식단을 계획한다.	-0.03	0.50	-0.08	0.17	0.29	0.04	0.37
4	가족들의 건강을 위하여 신경을 써서 음식을 만든다.	0.03	0.50	0.25	0.19	-0.02	0.06	0.62
20	가정생활의 시간계획은 예상밖의 일을 고려하여 시간적으로 여유시간을 넣어서 편다.	0.06	0.49	-0.03	0.12	0.23	0.39	0.43
53	앞에 가는 여성다운 품성을 아들에게는 남성다운 품성을 지니도록 키운다.	-0.15	0.46	0.28	0.13	-0.35	0.22	0.51
5	세수마련 및 진실시에는 전통적인 격식에 맞춘다.	0.31	0.22	0.67	-0.08	-0.02	-0.11	0.62
26	제사는 우리 가문의 전통이므로 그대로 계승한다.	0.26	0.05	0.60	-0.04	-0.14	-0.19	0.49
46	일정액을 미리 정해놓고 무리를 해서라도 매달 그 액수를 저축한다.	-0.28	-0.08	0.57	0.08	0.16	0.11	0.47
3	수입 중에서 일부를 우선 저축하고 나머지 돈을 생활한다.	-0.25	0.03	0.57	0.09	0.01	0.13	0.41

〈표 4〉 가정관리행동유형 요인분석 계속

문항 번호	변 인	요인 I 소비·편의 주의형	요인 II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	요인 III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	요인 IV 생활개선형	요인 V 보수·절약형	요인 VI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	Cummunality
50	명절에는 고추한 음식을 만든다.	-0.04	0.05	0.55	0.37	0.16	0.04	0.48
44	가정을 운영하는데 전통적인 생활습관이나 관습을 지킨다.	0.03	0.36	0.50	-0.11	0.22	0.12	0.46
49	편리하다고 생각되는 기구나 부엌용품은 갖추어 놓고 사용한다.	0.38	0.09	0.04	0.64	0.10	-0.06	0.59
12	부엌을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선한다.	0.08	0.17	0.05	0.64	0.23	0.06	0.48
34	철이 지난 옷을 일정한 장소에 따로 보관한다.	-0.13	0.01	0.05	0.59	-0.24	0.19	0.46
37	가족들이 외출을 할 때에는 행선지, 귀가시간 등을 알아둔다.	-0.12	0.25	0.16	0.54	-0.23	0.14	0.46
48	집안 분위기를 위해 가구의 위치를 바꾸어본다.	0.11	0.20	-0.04	0.51	0.19	-0.09	0.36
31	콩나물이나 파 같은 것을 집에서 길러 먹는다.	-0.04	-0.14	0.05	0.07	0.66	0.05	0.46
47	아이들의 옷이나 간단한 수예품 등은 손수 만든다.	-0.01	0.25	0.09	-0.13	0.61	-0.07	0.47
16	가정행사나 예의를 갖추어야 할 모임에는 한복을 입는다.	-0.09	0.07	0.09	0.03	0.55	0.01	0.33
10	유행이 지난 옷은 고쳐서 입는다.	-0.32	0.19	0.002	0.14	0.55	0.01	0.37
18	가족들의 취미생활을 위한 기구에 신경을 쓴다.	0.18	0.38	-0.06	0.19	0.41	0.27	0.46
19	가정생활을 위해 한번 정한 목표라도 상황에 따라 변경하기도 한다.	0.003	0.03	-0.05	0.04	-0.01	0.75	0.56
23	그날 하기로 계획했던 일이라도 형편에 따라 미루기도 한다.	0.04	-0.08	-0.003	-0.15	-0.22	0.58	0.42
9	가정행사의 계획을 세웠더라도 가족에게 불필요를 줄 때에는 그 가정행사를 취소한다.	0.05	0.04	0.11	0.09	0.18	0.52	0.37
36	가정을 경영하기 위한 나의 시간이나 행동을 자유롭게 계획하고 행한다.	0.25	0.29	-0.03	0.21	0.003	0.43	0.37
Eigen Value		4.71	3.32	2.09	1.96	1.63	1.57	45.0
Pct. of Var.		13.9	9.8	6.1	5.8	4.8	4.6	

변인으로 경제적 자원지각도와 생활수준 평가도가 영향력있는 변인으로 판명되었으며, 25.7%의 설명력이 있었다. 즉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을 높게 지각할수록, 소득이 많을수록, 자신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스스로 느낄수록 소비·편의주의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고 있었다.

이 유형의 특징으로 시장의존적인 가정관리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선행연구(김혜연, 1986:54)에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장의존형의 가정관리행동을 보인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문숙재·홍성희(1988: 166)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사회화정도가 높게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정관리를 위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금전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 적정하다고 느끼며 동시에 자신의 생활수준이 높다고 느끼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여 편의를 우선으로 하여 근검·절약을 하기보다는 금전지출을 많이 하면서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려고 하는 소비성향이 강한 가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나. 유형 2: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 유형의 가정관리행동에는 결혼지속년수, 남편의 학력, 가사노동 만족도, 의사소통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으며, 설명력은 29.5%로 나타났다. 즉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사노동 만족도 및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을 나타내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외부정보를 적극 수용하여 활용하면서 가족관리에 초점을 두는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최동숙(1984; 276)의 연구에서 가정생활주기가 초기단계일수록 가족자원관리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결혼지속년수가 짧은 것을 가정생활주기가 초기단계로 간주한다면, 결혼지속년수가 짧을수록 가족의 건강과 자녀양육 등 가족관리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가정생활에서 누적된 경험이 부족하여서 외부의 정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중심

형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나타낸 것은 원효중(1984: 40)의 연구에서 가정관리행동유형과 직접관련되는 연구는 아니나 남편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부간에 개방적인 친숙형의 의사소통양식을 나타낸 것과 비교해 볼 때 남편의 학력과 의사소통 만족도는 가족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김연화(1986: 46)의 연구에서 주부역할에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주부일수록 가사노동에 더 만족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명숙(1987: 47)의 연구결과 가사노동에 대한 평가도가 높은 집단의 가정관리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미루어 볼 때 가사노동 만족도가 높은 주부가 가족구성원의 인적 관리에 관심을 갖는 가족중심적인 가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유형 3: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 유형의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사노동 만족도, 경제적 자원지각도, 남편의 학력, 주부의 연령 등이었다. 즉 가사노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자원지각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학력이 낮을수록,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의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설명력은 15.6%이었다.

조영희(1985; 42-47)의 연구에서 40대 주부보다 30대 주부가 시간 및 자원관리행동에서 안정지향형의 관리유형으로 나타난 결과와 이정우·오경희(1988b:140)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적을수록 안정지향적인 가정관리행동유형을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부의 연령이 적은 경우 가정경영에 대한 경험보다 자신감이 부족하여 변화에 신중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면 진취적인 측면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특징으로는 계획적이며 고정적인 가정경제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주부의 경제적 자원지각도가 높을수록 계획적인 경제관리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장기적인 경제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사료된다.

라. 유형 4: 생활개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 유형의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가족적 자원지각도, 의사소통 만족도이었으

며 13.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즉 가족적 자원지각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은 '생활개선행'으로 나타났다.

이명숙(1987: 55)의 연구결과 자원적정도 인지수준이 높을수록 가정관리능력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비교할 때 주부자신이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할 자원을 더 높게 지각할수록 보다 더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정관리행동과 의사소통 만족도 사이의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김경아(1990: 56-57)의 연구에서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가정경영상의 모든 영역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주부자신이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정도에 더 만족할수록 효율적인 가정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 유형 5; 보수·절약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유형의 특징은 전통·보수적이면서 절약에 중점을 두는 가정관리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성향이나 개인주의적 의식이 강해지는 오늘날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히 요구되는 관리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가정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의사소통 만족도와 소득이었다. 즉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보수적이며 절약형의 가정관리를 하고 있었다.

한 가정의 가정관리는 관리자로서 주부 혼자만의 결정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의사소통에 대한 주부의 만족도는 주부가 행하는 가정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

(표 5)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회귀분석

가정관리행동	변인	b	Beta	R ²	F
I 소비·편의주의형	주부 학력	0.97	0.16	0.257	5.38*
	경제적 자원	0.31	0.20		13.58***
	월평균 소득	0.01	0.16		8.15***
	생활수준 평가도	0.86	0.13		5.31***
II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	결혼지속년수	-0.13	-0.18	0.259	5.14*
	남편 학력	1.76	0.23		19.49***
	가사노동 만족도	0.91	0.18		13.57***
	의사소통 만족도	0.11	0.13		5.42***
III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	가사노동 만족도	0.21	0.22	0.156	16.12***
	경제적 자원	0.30	0.21		13.21***
	남편 학력	-1.39	-0.20		7.31***
IV 생활개선행	연령	-0.10	-0.13	0.137	1.94*
	가족적 자원	0.25	0.21		10.31***
	의사소통 만족도	0.06	0.12		3.70**
V 보수·절약형	의사소통 만족도	0.09	0.15	0.068	6.37*
	월평균 소득	-0.34	-0.11		2.98*
VI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	경제적 자원	0.01	0.13	0.107	4.89*
	가사노동 만족도	0.05	0.11		3.51*
	의사소통 만족도	0.04	0.10		2.43*
	연령	0.07	0.18		6.89***
	자녀수	-0.31	-0.13		3.70***
	주부 학력	0.37	0.12		2.87***

* p<.05

** p<.01

*** p<.001

난 '소비·편의주의형'과 비교해 볼 때 소득이 낮을수록 절약을 강조하는 가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한 가정의 소득이 주부의 자원관리 특히 경제적 자원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가정의 자원관리는 최적의 자원사용을 통한 가족목표달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과소비에 대한 문제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검소와 절약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이 유형의 가정관리에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바. 유형 6: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이 유형의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경제적 자원지각도, 가사노동 만족도, 의사소통 만족도, 연령, 자녀수, 주부의 학력으로 10.7%의 설명력이 있었다. 즉 경제적 자원지각도와 가사노동 만족도 및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연령이 많고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연구(조영희, 1985: 47; 이정우·오경희, 1988a: 45; 1988b: 146)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변화지향적인 가정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연령이 적을수록 안정지향적인 가정관리를 하는 III유형과 비교할 때 일관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유형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을 고찰하는데 그 연구목적에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은 편리함을 위하여 금전지출성향이 강한 '소비·편의주의형', 개방적이어서 외부정보를 수용·활용하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가족관리에 중점을 두는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 전통적인 생활관습을 지키면서 계획대로 가정관리를 수행하는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 합리적인 생활

을 위한 설비개선과 동시에 가정생활의 질서를 강조하는 '생활개선형', 근검·절약을 우선으로 하는 '보수·절약형', 관리자로서의 주관을 가지고 융통성있게 가정경영에 임하는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의 6가지 유형으로 명명·추출되었다.

2. 각각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음과 같다.

1) '소비·편의주의형'은 주부의 학력·경제적 자원지각도·월평균소득·생활수준 평가도가 높을수록 나타나는 가정관리행동유형이었다.

2) '정보활용 및 가족중심형'의 가정관리행동은 결혼지속년수가 적을수록, 남편의 학력·가사노동 만족도·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3)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의 가정관리행동은 가사노동 만족도·경제적 자원지각도가 높을수록, 남편의 학력이 낮고 주부의 연령이 적을수록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4) '생활개선형'의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적 자원지각도와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5) '보수·절약형'의 가정관리행동은 의사소통 만족도가 높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6) '자아충실 및 변화적응형'의 가정관리행동은 의사소통 만족도와 주부의 학력이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나타나는 유형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소비·편의주의형' 가정관리행동은 소비성향이 높은 유형으로서 6가지로 유형화된 가정관리행동 중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면을 내포하는 유형이었다. 각각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소득의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금전지출을 많이 하고 소비성향이 큰 '소비·편의주의형'이고 이에 반해 소득이 낮을수록 근검 절약하는 특성을 지닌 '보수·절약형'의 관리행동유형을 나타낸 것을 볼 때 실제로 가정에서 획득하는 가계소득이 가정관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가정관리행동유형에서 연령이 적을수록 '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 연령이 많을수록 '자아충실 및 변화지

향형'으로 나타났다. 이 두 유형의 특성이 각각 안정적이며 고정적인 면(유형 3)과 변화를 수용하며 융통성이 있는 특성(유형 6)으로 서로 상반되는 가정관리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주부의 연령이 가정관리행동에서 중요한 영향변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의사소통 만족도는 '소비·편의주의형'·'전통유지 및 안정지향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유형의 영향변인으로 제 영향변인 중 가장 중요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가족간의 만족스러운 의사소통을 거친 의사결정사항을 수행하는 가정관리가 가장 합리적이며, 이러한 의사소통의 만족정도가 실제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주요 영향변인으로 나타난 심리적 변인 즉 경제적 자원지각도, 의사소통 만족도, 생활수준 평가도 등 이들 변인간의 관계를 규명하여야 하겠다. 둘째 가정생활의 전체영역을 대상으로 가정관리행동을 유형화 하였으나 생활영역의 특성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유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정관리대상의 특성에 따른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아, "기혼여성이 지각한 가정경영상의 스트레스수준 및 관련변인 고찰"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91.
- 2) 김연화, "도시주부의 가치관과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3) 김옥희, "부산지역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4) 김혜연,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의 분석",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6.
- 5) 문숙재, "가정관리행동을 위한 인류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제19권 4호, 1981, pp.65-71.
- 6) ———, 가정생산, 서울: 신광출판사, 1988.
- 7) 문숙재·홍성희, "생활양식유형에 따른 가사노동 사회화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3호, 1988, pp.153-169.
- 8) 박병석,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홍익제, 1985.
- 9) 박운성, 현대조직행동론, 서울: 박영사, 1988.
- 10) 박인경, "도시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의식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6.
- 11) 서창원, "주부의 가사노동 만족도와 그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3.
- 12) 원효종, "부부간의 의사소통양식과 의사소통 불안의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4.
- 13) 이기영,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인간생태학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2호, 1984, pp.35-60.
- 14) ———,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2권 3호, 1984, pp.111-127.
- 15) 이명숙,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 및 자원인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7.
- 16) 이안나·신효식·우희정, "도시주부의 스트레스와 가정관리행동유형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2호, 1991, pp.137-154.
- 17) 이정숙,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자아실현성간의 관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83.
- 18) 이정우,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에 관한 연구", 가정관리연구, 수학사, 1981a.
- 19) 이정우, "가족환경적 요인이 가정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대 논문집 제22집, 1982b, pp.167-195.
- 20) 이정우·오경희, "도시주부의 가정경영에 대한 가치관이 가정관리행동유형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김경진 교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 숙명여대, 생활과학연구소, 제2집, 1988a, pp.27-55.
- 21) ———,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1호, 1988b, pp.131-148.
- 22) ———,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의 제 영향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9권 2호, 1991, pp.1-18.
- 23) 임정빈, "가치성향 의사결정양식 및 가정생활 만족",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7.

- 24) 김정빈·임혜경, “도시주부의 라이프스타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6권 1호, 1988, pp.223-249.
- 25) 장명옥, “우리나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실태 조사와 그 효율적인 관리방법에 대한 연구”, 서울대 가정대 논문집, 제1권, 1976, pp.21-53.
- 26) 장명옥, 가정관리학, 서울: 교문사, 1987.
- 27) 정은숙,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 측정에 관한 일 연구”, 이대 석사학위논문, 1985.
- 28) 조미환,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과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 한양대 석사학위논문, 1990.
- 29) 조영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30) 지금수,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연구”, 전북대 논문집, 제4집, 1982, pp.205-216.
- 31) 채옥희, “가사노동의 조직화 및 관리자 유형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87.
- 32) 최동숙, “도시주부의 가족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0집,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소, 1984, pp.267-284.
- 33) ———,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 34) 최윤희, “도시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2.
- 35) 한상순, “주부의 가정관리능력과 가족의 행복도와의 관계”, 건대생활문화연구원 연구보고, 제2집, 1978, pp.5~37.
- 36) Anderson, R.E. & Carter, I, Human and behavior in the social environment(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장인협 외 공역 서울: 집문당, 1986.
- 37) Hersey, P. & Blanchard, K.H.,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behavior(조직행동의 관리), 김남현 역, 서울:경문사, 1982.
- 38) Balakrishnan, Revathi, Firebaugh, Francille.M. & Stafford, Kay, “Research an rural family resource management: a third world perspective”, *Journa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Vol.10, 1986, pp.185-193.
- 39) Beard, Doris & Firebaugh, Francille. M., “Morphostatic and morphogenic planning behavior in families: Development of a measurement instru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6, No.3, 1978, pp. 192-205.
- 40) Decoan, R.E. & Firebaugh, F.M.,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Allyn and Bacon, Inc., 1981.
- 41)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4th ed., Prentice-Hall Inc., 1980.
- 42) Nickell, P.L., Rice, A.S. & Tucker, S.P., Management in family living, John Wiley Sons, Inc., New York, 1976.
- 43) Riebel, L.Jeanne, “Philosophy of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52, No.1, 1960, pp. 16-19.
- 44) Rowland, Virginia, T., Dodder, Richard.A & Nickols, Sharon.Y., “Perceived adequacy of resources: development of a scal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14, No.2, 1985, pp.218-225.
- 45) Schlater, J.Davis, “The Management Process and its core 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9, No.2, 1967, pp. 93~98.
- 46) Schlater, J.Davis & Vincent, W.H., “Graduate interdisciplinary course in managem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54, No.9, 1962, pp.93-98.
- 47) Swanson, Bettye.B., Introduction to home management, MacMillan Publishing Co., Inc., New York, 1981.
- 48) Williams, Flora L., “The 15 golden rules for success as a manager”,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62, September, 1974, pp.30-33.